

● 1983년에 바란다

기 위주의 소비성향이 강한 요즈음 닭고기의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협회 등을 중심으로 하여 더욱 더 많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아감으로써 닭고기의 소모량이 많아졌으면 한다.

세째로, 우리 양계인들의 힘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양계의 경영합리화를 이룩하여 양계인 각자 스스로의 권리를 옹호하며 생활하여 나아가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네째로, 위생 예방관리에 철저함을 기하여 질병의 예방에 최선의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구입처의 질병 유무상황과 그 인근지역의 질병 발생상황 등을 조사, 확인하여 출입통제 및 소독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질병 없는 양계장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한다.

더우기 작년 경우처럼 I.L.T의 만연으로 인한 양계인들의 막대한 피해를 철저한 예방 조치로써 그와같은 피해가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줄 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의 바램들을 축산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않은 필자가 느낀 대로 몇자 적어 보았다.

짧은 글이나마 이렇게 몇가지 바램을 쓸 기회를 주신 양계협회께 감사를 드리며 이같은 바램이 올 새해에는 꼭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동물약품 제조판매회사의 일선 영업사원으로서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양계인 여러분께 아낌없는 봉사를 드릴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공통된 마음을 한데 모아 자신의 지위향상을 위한 한해가

강 석 부
(본회 수원분회장, 육계업)



계해(癸亥)신년을 맞이하여 우리 양계업계의 발전과 양계인에게 신의 가호가 있길 빈다. 다시한번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양계업은 어느 해 보다 빠듯던 해였다고 본다. 봄부터 찾아온 ILT는 양계업계에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피해는 막대하리라 보는데 다행히 신속한 백신공급으로 다소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일원에서 발생되고 있어 안타깝게 여기며 하루속히 ILT에 대한 방역이 이루어져 금년은 이런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82년은 우리 양계업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TV에서 소비촉진 PR방송을 하였다. 참으로 누가 했던간에 양계인으로서 기쁨과 흐뭇함을 느끼게 하였다.

정책적인 육류소비 전환의 일환이지만 양계업계는 지난해 그 홍보의 덕을 본 것이 사실이고 홍보라는 위대한 힘을 재인식 했다고 본다.

바라건대 금년도에도 계속적이고 창의적인 또한 자발적으로 온 매개체를 통하여 홍보에 힘쓸 해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양계산물은 타 육류보다 질과 가격면에서 월등하면서도 소비자로부터 하등시 되어왔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생산한 상품을 개방하지 않았고 또한 소비

자에게 인식시키지 못한 결과이다. 83년은우리가 이점을 연구하고 또 홍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소비를 다원화 할 것이다.

일말에서 알다시피 계란과 닭고기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서민층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위에서 말한 전국민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요리개발이 없었고 과거의 요리방법 밖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생활 속에서는 도외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 좀 더 다양한 요리연구가 시급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육류 기호도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순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호는 변할 수 있고 또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닭고기를 요리해 먹는 방법은 옛날부터 우리가정에서 요리할 때 국과 찜이었고 80년도 부터 튀김요리인 켄터키 치킨이 상륙하여 소비자로부터 환영을 받게되어 소비촉진의 전환기에 이르렀다. 금년도에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육류소비 경쟁에서 단연 양계산물이 앞장 설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 해야 할 것이며 아무리 좋은 뜻과 우수한 상품이 있어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다.

금년 한해는 양계인들이 긍지를 살려 스스로 자기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소비촉진 홍보에 적

극성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 금년도에 축협 중앙회에서 현재와 같이 부분적인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만족 할 것이 아니라 양계인 각자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사업에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물론 협회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 되어 있겠지만 전국 양계인들은 지역적으로 분회 및 계우회 별로 계획을 세워 거국적인 홍보를 해야 하며 우리 양계업의 유관업체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기대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금년은 양계산물의 생산원가를 절감해 양계업도 반석같은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우리 각자의 사업이 안정되고 향상되어야 단합과 참여도있게 마련이다. 신년을 맞아 새로운 각오와 슬기로운 설계로 경영을 성실히 하여 원가절감을 극대화할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며 그러자면 자기 분수에 맞는 규모와 병아리 사료 구입의 신중과 현금구입, 사육기술 개발 및 향상 등으로 알찬 해가 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끝으로 금년은 모든 양계인의 공통된 마음을 한데모아 자신의 지위향상을 위해 힘껏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모두의 건투를 빈다.

새해 아침에

사료값 안정, 계란값 안정, 새로운 질병의 방어가 꼭 이루어져야

천 용 수

(채란양계업)



1983년 새해아침에 뜻밖의 원고부탁을 받고 보니 조그만 채란업을 하는 사람으로 황송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다.

1979년 이후의 양계업 불황은 예상외로 커서 많은 사람들의 공든 탑을 무너뜨렸고 경영합리화의 새로운 과제를 남기기도 했다. 경영의 합